

특특뉴스

올해 기초연금 월 7,500원 인상

이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2.5% 오른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액에 월 30만원에서 7,500원이 오른 월 30만 7,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렸다. 물가 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작년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소득계층별로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2021년에는 30만원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연간 물가 변동률은 2019년(0.4%), 2020년(0.5%) 등 2년 연속 0%대에 그쳤지만, 2021년(2.5%) 2%대로 뛰어올라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픽 경제



작년 방한 외래관광객 100만명 하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이 100만명 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방한 외래관광객은 87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3% 줄었다.

지난해 11월 외래관광객이 9만 4,000명 수준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지난 한해 전체 외래관광객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가격리 조치 등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각국의 국경이 여전히 봉쇄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방한 단체여행과 에어텔 상품 판매를 계속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국 간 관광 목적 방문객에 대한 입·출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포용금융 실천 지역 대표은행 역할 강화”

2022년 지역경제인에 듣는다

송중욱 광주은행장

핵심산업 확대

수익 중심 내실성장

비대면 금융 대비

디지털·IT 역량 강화

베트남 하노이지점 개점

ESG 경영 실천

지탈과 IT부문을 중심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행장은 코로나19 경기침체 및 디지털 금융산업 등 치열한 경쟁환경에 맞서 ▲지역 중소기업 및 중저민 중심의 포용금융 실천 ▲디지털과 IT 중심 내부역량 업스킬링(Up-Skilling) ▲핵심사업 확대 통한 수익성 중심 내실성장 추진을 경영기조로 발표했다.

4대 실천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미래 성장동력 확대 ▲전략대출과 IB자산 중심 핵심사업과 지역 중소기업대출 중심 기반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 중심 내실경영 강화 ▲고객기반 확대를 통한 장기성장 기반 강화 ▲금융권 최고의 건전성 관리를 제시했다.

송 행장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으로 디지털과 해외사업, ESG경영을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디지털금융 영업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과 디지털금융센터 기능을 강화해 비대면 영역에서의 가시적인 수익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사업에 자율권을 부여, 디지털금융 혁신에 속도와 창의성을 더한다. 창구 대면영업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단계적 효율화를 추진해 영업점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계획이다.

베트남 증권 자회사인 JBSV의 사업 다각화와 베트남 하노이지점 개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금융시장에서의 상호 시너지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사업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대표은행으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다. 차별화된 친환경 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그린 비즈니스(Green Business)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대외적으로는 녹색금융 투자를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민·관 공동 ESG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송 행장은 “금융권 최고의 건전성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부실자산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강화를 위해 전략대출과 투자은행(IB)자산 중심 핵심사업과 지역 중소기업대출 중심의 기반사업 확대한다. 이를 위해 특화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인수금융 등 투자 다각화에 나선다.

영업점 중심의 대면채널은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PB역량을 끌어올리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토털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디지털중심의 비대면 채널은 은행 내·외부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신규



고객 유입 채널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송 행장은 “미래로 향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혁신의 노를 힘차게 저어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자세로 미래를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은행의 100년을 향한 이정표를 향해함께하는 가치와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전진하자”며 “지역과 함께 상생과 동행의 가치를 꿈꾸는 자랑스럽고 찬란한 광주은행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황애란 기자

한전, 지역별 전력공급 여유정보 공개

기업 수요분산 유도 탄소중립 실현 기대

한국전력은 지역별 전력공급 여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공급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은 최근 홈페이지에 해당 시스템을 공개했다.

전력공급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은 전력사용 예정자에게 최적의 입지 정보 제공하고 자발적 수요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근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계통

점으로,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의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전력망 보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공개한 전력공급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은 전국 83개 345kV 변전소에 대한 전력공급 여유용량 및 지역별 여유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력사용 예정자가 최적의 입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들이 투자계획 단계에서 전력공급 여유를 미리 감안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분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공급 여유지도를 통해 전국과 지역별 여유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주소 검색기능을 통해 공급을 원하는 위치의 변전소 공급 여유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단,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전력공급 여유정보는 345kV 변전소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참고자료이며, 실제 전력공급 가능여부는 전기사용신청 이후에 최종 확정된다.

한전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방안에 따라 지역별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을 감안한 최적화된 전력망 투자, 재생에너지 적기 수용을 위한 선전력망 후발적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공정·청렴·투명경영...지역 주거안정”

김재경 LH 광주전남본부장 취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14대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김재경 본부장(사진)이 지난 3일 취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임식은 생략됐으나, 4일 각 처·부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 본부장은 “고향에서 다시 일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기쁘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공정·청렴·투명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주택공급·주거복지서비스 등 본연의 업무 뿐 아니라 안전관리,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탁월한 사업추진력과 소



통의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을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본부장은 장흥 출신으로 1990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해 본사 기획실, 사업개발처, 미래전략처, 홍보실, 판매기획처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연수 기자

전남매일 연중 캠페인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광주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으로
평소 살던집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돌봄전화 ☎062-350-4000